

## 오후네 유적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에 있는 오후네 유적에서는 기원전 3,200 년경의 대규모 마을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100 개 이상의 수혈식 건물의 토대, 무덤, 저장용 구멍과 대량의 토기, 석기, 동물의 뼈가 포함된 성토(흙무지)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유적에서 약 1,000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거주에 적합한 위치

오후네 유적은 태평양을 마주한 평평한 구릉지 위에 펼쳐져 있으며 주변에는 오후네강이 흐릅니다. 이 마을 유적에서는 탄화된 밤과 물개, 다랑어, 연어, 고래, 사슴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해안을 따라 사냥을 했으며 숲에서 식량을 채취했을 것입니다.

### 오후네 유적의 수혈식 건물 터

이 마을의 사람들은 수혈식 건물에서 생활했습니다. 수혈식 건물이란 땅을 파서 구획이 나뉘지지 않은 하나의 커다란 주거 공간을 만든 뒤, 그 위에 나무 기둥이나 들보를 세운 건물의 형태를 말합니다. 수혈(아래로 판 구멍)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기둥이 서 있던 구멍의 위치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오후네 유적에서 120 개에 가까운 수혈식 건물의 토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수혈 중에는 깊이가 2m 를 넘고 가로 세로 길이는 10m 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깊이와 길이를 가진 수혈은 다른 유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기초 중 일부가 발굴된 상태로 보존되어 이 유적에 존재했던 건물의 규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 희귀한 발견

건물 아래에 뚫린 작은 구멍의 바닥에서 검게 변한 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흙을 분석한 결과, 태반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태반을 묻는 행위는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목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일본의 문화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태반을 집 현관에 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 공예품의 보고

이 유적에서는 길이가 거의 80m, 너비는 10m 에 달하는 대규모 성토(흙무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토에서는 대량의 토기와 석기, 동물의 뼈, 그리고 사슴뿔로 만든 바늘 등의 공예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성토 내부에서는 수혈식 무덤도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불을 피운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토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또는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토기의 디자인과 특징

토기의 형태와 디자인을 살펴보면 선사 유적의 연대를 특정하여 그 장소에서 얼마 동안 사람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바닥이 평평한 원통형 토기는 그 모양과 디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뚜렷한 변화는 오후네 유적에서 1,000 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의 장식은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고 가장자리도 단순한 모양입니다. 반면,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는 가장자리에 문양이 있고 장식이 달린 특징을 보입니다.

####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

오후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가키노시마 유적[링크] 옆에 있는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속이 빈 중공 토우 등 이 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오후네 유적에서 차로 약 5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관련 유적

이 외에 대규모 마을 터가 발견된 곳으로는 고노쇼 유적[링크](이와테현)과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링크](아오모리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몬 시대 유적입니다.